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종합병원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였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한 일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결심에 따라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일떠서게 된다.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이 3월 17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의 명당 자리에 건설되는 평양종합병원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의 령정을 즐기치게 이어가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착공식장은 인민보건의 비약적발전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며 인민들에게 가장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건설자들의 열의로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건설자들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진활로를 열어나가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착공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인 김재룡내각총리, 리일환,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군대와 사회의 건설지휘성원들, 건설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평양시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할때 대한 과업을 토의 결정하고 당창건 75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건설로 규정한테 기초하여 공사를 최대한기간에 완공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추진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속에서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는것이 우리 당의 가장 큰 기쁨으로, 힘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이 보건부분을 추켜세우는것을 우리 식 사회

주의의 영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정치적문제,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할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통하여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며 건설과정에 창조되는 결사관철의 정신, 건설속도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분에 과급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천명하시고 병원건설을 당창건 75돐까지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귀중한

우리 인민을 위한 오늘의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을 위한 병원을 보란듯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훌륭하게 일떠세우자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위대한 김정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한평생이 어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새로운 주체100년대와 더불어 더욱 뜨겁게 펼쳐가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격정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기념하여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과단추를 누르시였다.

순간 평양종합병원착공을 알리는 첫 발과의 목음이 장쾌하게 울려 퍼졌다.

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이 펼쳐진 건설장은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해 최상급의 종합병원건설을 받기하고 수도의 중심부에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병원착공도 선포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참가자들의 열화같은 흠모심과 무한한 걱정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당창건 75돐을 맞으며 평양종합병원을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인민관이 완벽하게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고 충성의 보고를 올릴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공사에 전격진입하였다.

본사기자



# 당창건 75돐을 맞으며 평양종합병원을 훌륭히 건설하자

##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주 체 109 (2020) 년 3월 17 일

동무들,

얼마전에 있는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정세들을 분석하고 올바른 투쟁방식과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가 당중앙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하고 일찌기 있어본 적 없는 극악한 대내외적환경속에서 자립적발전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거창한 투쟁을 벌이고있는 올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75돐을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앞에는 우리 식 사회주의 발전행로에서 반드시 획기적이며 활기찬 국면을 조성해야 할 올해의 어렵고도 방대한 투쟁과업들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람있는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숙원해온 현대적인 종합병원 건설이며 이러한 중대하고도 보람있는 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당은 당중앙전원회의에서 나라의 보건, 의료부문의 현 실태를 전면적이고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자기 나라 수도에마져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의 시설이 없는것을 가슴아프게 비판하였으며 당창건 75돐이 되는 올해에 먼저 평양시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토의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중앙은 올해에 계획되었던 많은 건설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완공하여야 할 중요대상으로, 정면돌파전의 첫째인 올해에 진행되는 대상건설중에서도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건설로 규정하고 지난 2개월 남짓한 기간 부지선정으로부터 설계와 건설력량편성, 자재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타산하면서 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추진하여왔습니다.

당에서는 평양종합병원을 멀리 앞을 내다보고 현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미 각 부문 일군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발전수준이 높다고 하는 병원들을 참관하도록 조직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설계를 높은 수준에서 선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이제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평양종합병원조감도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건설목표는 대단히 방대하며 공사기일은 긴박합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나는 당에서 제일 중시하고 제일 관심하고있는 이 대상건설을 내가 제일 믿는 건설부대인 근위영웅려단과 8건설국동무들에게 맡길것을 결심하였으며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착공의 첫삽을 뜨는 동무들을 전투적으로 고무격려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가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우이며 또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됩니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모두가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면 우리 당에 그보다 더 기쁘고 힘이 되는 일 없습니다.

최근에 평양시에만 일과병원과 치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과 아동병원도 현대적으로 일떠세웠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이같은 성과들은 우리 당의 높은 리상과 포부에 비해볼 때 큰 산속의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보건을 인민적인 보건으로, 선진적인 보건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짚어야 합니다.

평양시에만으로도 명당자리인 이곳에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크게 건설되는것을 아시면 아마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실것이고 우리 인민들도 남녀로소모두가 다 좋아할것입니다.

평양종합병원이 일떠서면 우리는 우리 인민의 소중한 건강과 안녕을 보다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얻게 될것이며 이를 중심적인 기지로 하여 나라의 보건부문을 크게 비약시킬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주의보건체제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보건부문을 추켜세우는것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정치적문제, 조건과 환경이 어떠한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할 중대사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당의 부름에는 언제나 충실한 동무들의 뜨거운 애국적헌신성이 있기에 평양종합병원이 정면돌파전에 떨쳐나선 전체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훌륭히 일떠서게 되리라 믿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동무들,

평양종합병원건설을 통하여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열사봉사로 일관시키며 병원건설과정에 창조되는 결사관철의 정신, 건설속도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 파급되게 하려는것이 당의 기본 의도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을 전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증진시키는 가장 인민적이고 선진적인 보건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당창건 75돐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평양종합병원건설에 참가하는 모든 일군들과 지휘성원들, 건설자들은 인민들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며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재부를 일떠세우려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 보람찬 사업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창건기념일까지는 이제 불과 20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물론 이 방대한 공사를 이렇듯 짧은 시일내에 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공사조건은 우리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으며 이로 하여 공사과정에 많은 예외와 난관이 있

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건설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을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며 인민들을 더 잘 보호하고 더 잘살게 할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평양종합병원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여 병원이 우리 인민들을 맞이하게 해야 합니다.

제기일안에 공사를 완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조건은 어렵고 난관은 많지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는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직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하고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 자각들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투쟁한다면 공사과정에 부닥치는 난관들을 능히 극복할수 있을것입니다.

당의 령도따라 건설의 대변영기를 앞장에서 펼쳐오는 나날에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당창건 75돐을 자랑스러운 기념비적창조물완공으로 빛내기 위한 총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모든 건축물이 현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고 오늘뿐아니라 먼 후날에 가서도 인민들의 생활에 효과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내용적로나 질적으로 완전결합한 건축물로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요구입니다.

건설부문의 창조물은 한번 쓰고 마는 소비품과는 달리 말그대로 만년대계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잘되고 질 좋은 자재를 쓴다 하여도 시공을 잘하지 못하면 건설물의 질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고 하여 시공의 질을 낮추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속도를 늦추는것은 다 당의 사상과 요구에 배치되며 이는 우리가 말하는 속도전과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동무들이 더 잘 알고있는바 같이 건설에서 시공을 잘못하여 뜯었다붙였다하면서 반복공사를 하게 되면 로력과 자재, 자금을 많이 낭비하고 건설속도를 저에하여 공사를 제기일에 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물론이고 준공하고도 돌아앉아 인차 또 보수를 하면서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건물의 수명을 담보할수 없게 하며 나아가서 우리 건설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것과 같은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거듭 재삼 강조하지만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은

모든 건설자들의 가장 무겁고 신성한 의무입니다.

건설물의 질은 감독기관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공의 매 공정을 담당하는 지휘성원들과 당원들, 군인들과 근로자들의 당과 인민에 대한 깨끗한 충성심과 량심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설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조국과 인민, 자기자신을 위한 일이며 대를 두고 물려주어야 할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늘여나가는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관심하고 호상 통제하며 서로 방조하면서 집체적지혜와 재능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공법을 무시하고 날림식으로 하는 악습과 일본세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건설공정별로 시공기준과 건설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누가 보건설물 순결한 량심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공사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건설장 그 어디에서나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세멘트, 강재,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극력 아껴쓰는 기풍을 세우며 모든 건설공정들에서 주인다운 자세와 립장이 견지되고 책임성이 발휘되며 정성이 고여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감독기관들에서는 감독기관대로 자기의 사명과 본분에 맞게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병원건설의 전 과정이 설계와 공법의 요구를 지키는데서 표준,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자재와 설비들의 선행보장이자 건설속도의 가속화입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금속공업성, 건설건설공업성, 립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최대로 앞당겨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원과 순천의 로동계급들이 질 좋은 세멘트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고 금속공업부문에서 철강재를 팡팡 뿜어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연유와 목재, 유리 등을 지체없이 생산, 수송하고 원림조성사업도 예견성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보건성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앞으로 평양종합병원을 운영할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을 준비시키고 의료봉사를 지능화, 정보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강구하며 병원운영에 필요한 의약품과 소모품, 각종 설비들도 책임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건설연합상무 정치분과에서는 건설현장을 당의 전투적구호와 붉은 기발로 뒤덮고 침입식, 집초식으로 사상공세의 명중포화를 련속 들이대어 일대 양양과 경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건설의 성과적완공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지휘성원들은 당앞에 중대한 건설과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립체적으로 짜고들며 언제나 돌격전의 최선두에서 자기희생적인 투쟁으로, 이신작적의 혁명적기풍으로 건설자들을 영웅적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동무들,

겉쌓인 애로와 격난을 뚫고 수도의 한복판에 솟아 오르게 될 평양종합병원은 적대세력들의 더러운 제재와 봉쇄를 웃음으로 짓부시며 더 좋은 레일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과 우리 혁명의 굴함없는 형세를 그대로 과시하는 마당이 될것입니다.

모두다 귀중한 우리 인민을 위한 오늘의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자기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며 힘차게 투쟁하여 바로 이 자리에다 인민을 위한 병원을 보란듯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훌륭하게 일떠세웁시다.







# 인기를 끄는 개성고려인삼제품들

### — 고려인삼 전시장에서 —

예로부터 개성고려인삼은 명약중의 명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학기에 우리 선조들은 개성고려인삼 한뿌리가 금 한근보다 낫다고 일러왔다. 그 약효가 하도 심비로와 《신초》, 사람들에게 퍼를 준다고 하여 《혈삼》이라고 불리우는 개성고려인삼의 금새를 두고 한 말이다. 개성고려인삼은 장생(오래 사는것), 불로(늙지 않는것), 익기(기운을 두는것), 경신(몸을 가볍게 하는것)의 효능이 높은 명약으로 알려져있다. 세계적으로 개성고려인삼의 약효에 대하여 발표된 논문만 하여도 5,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개성고려인삼은 암세포를 죽이고 전이를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며 당뇨병예방과 스트레스제거 및 피로회복, 기억력증진, 소화방지 등에서 특효가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분석한데 의하면 개성고려인삼은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이고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 및 물질대사통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인삼의 약효는 한마디로 정상화작용이다. 즉 높은 혈압은 낮추고 낮은 혈압은 높여주는 기능, 인체의 모든 장기가 정상화되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것이 개성고려인삼의 뛰어난 약리작용이다. 또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

제하며 암유전자들 정상유전자로 되돌아가게 하는 항암작용을 한다. 정신적 및 육체적피로를 풀며 방사선피해를 막고 피부부를 아름답게 하는데서 개성고려인삼을 따를만 한것이 없다. 온갖 질병을 예방치료하는데서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개성고려인삼이 효과적이라는것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명약으로서의 개성고려인삼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나고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2동에 개성지방에서 자란 인삼으로 만든 갖가지 인삼가공제품들을 판매하는 고려인삼전시장이 있다. 이곳 전시장에서는 개성고려인삼을 넣어 만든 차, 커피, 단국, 술을 비롯한 수십여가지의 인삼가공제품들을 봉사하고있다. 이곳을 찾은 기자에게 박성애봉사원은 개성고려철통홍삼, 개성고려원형백삼, 개성고려홍삼쌀, 개성고려인삼차, 개성고려인삼액스 등

많은 인삼가공제품들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그뿐이 아니다. 이곳 전시장에서는 인삼타공, 인삼꿀떡, 인삼소꼬리보신탕, 인삼달걀공기찜, 인삼새우볶음, 인삼종합삼계찜, 인삼해삼초침, 인삼소파침, 인삼염양삼, 인삼백김치를 비롯하여 개성고려인삼을 넣어 만든 특색있는 음식들도 봉사하고있다. 특히 인삼담뽀는 개성지방에서 키운 인삼과 닭을 가지고 개성시의 이름난 요리사에서 전승받은 기술로 만드는것으로 하여 그 맛과 향취가 유별하다고 한다. 지난 시기 개성고려인삼제품들과 식품들은 국제상품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금광사는 평안북도 의주군 금광리 석송산에 있는 사찰이다. 이 사찰은 1848년 이전에 세우고 19세기 중엽에 다시 지은것이다. 석송산은 경치가 아름다워 《의주금강》이라고 일러왔으므로 금광사를 금강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금광사에는 중심건물인 대웅보전을 비롯하여 백화전, 청운당, 만세루 등 열한채의 건물들이 처마를 서로 마주 대고 서있다. 대웅보전은 정면 3칸(9.25m), 측면 2칸(6m)의 큰 건물인데 10개의 두리기둥이 합각지붕을 떠받치고있다. 이 건물의 특징은 두공이

측면 4칸(9.8m)의 단익공 홀처마의 합각집이며 철성각은 정면 2칸(4.65m), 측면 1칸(2.6m)의 두공이 없는 홀처마 배집이다. 자연풍치에 어울리게 여러 가지 지붕이 처마를 맞대고 있다. 금광사는 규모가 큰 건물의 하나로서 조선봉건왕조 말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본사기자



### 역사(유적)

## 금 광 사

포식과 익공식을 배합한것이다. 정면은 바깥 5포, 안 7포에 락꽃을 조각한 산미로 지붕받침을 장식하였다면 뒤면은 단익공으로 소박하게 처리되었다. 정면과 측면의 기둥은 보통 흐름식기둥이 아니고 밀직경과 우부반 직경의 차이가 적게 맞되 나뉘었으며 다른 건물보다 나지막한 평판방을 둘러쌌다. 대웅보전에 있는 만세루는 정면 3칸(10m), 측면

대동강구역은 맑은 강줄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구역인 상원군의 검은모루유적과 려포구역의 대현동유적, 덕천시 승리산 동굴유적 등에서 발굴된 인류화석들은 이 지역이 원인, 고인, 신인 등 인류진화의 순차적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옛 조상들이 레고로부터 태를 묻고 살아

### 사화

## 력서의 발전에 기여한 강보(4)

글 전철호, 그림 채대성

강보는 어머니의 말에 공감하지 않았다. 아무리 학식이 깊을지라도 길을 헛들면 한생 고생뿐일진대 제때에 헛들은 길을 알아차리고 두발을 뽐는 것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강보는 엄한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아직도 제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공명을 탐내다보니 제 혼자만이 큰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것이 바로 네 잘못이니. 그러나 이는 마땅히 함께 일하는 웃어른들에게 의탁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

어머니! 제 잘못 생각한것 같소이다. 김씨의 리실러실한 두손이 강보의 손을 포근하게 감았다. 「이 예민 제 아들을 믿는 다. 암, 믿고말고.」 이 밀직사의 장관으로 부임된 안향을 찾아가자. 작을사 한 키나 둥근 얼굴에서 영채를 뽐는 두눈으로 하여 범상치 않아보이는 안향은 집을 찾아가 강보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가 찾아온 사연을 안안향은 오늘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산놀이를 가자고 하였다. 강보는 제자를 위해 나라의 큰일을 돌보는 스승이 하루씩이나 시간을 내려는 그 마음에 목이 메었다. 사제간의 정을 흔할 때 과거를 주관한 스승과 그 스승의 손에서 급제할 제자간에 오가는 정만큼 자별한 정은 없을것이었다. 당시 과거제자들은 과거를 주관한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스승으로 여기고 공경하면서 한생 제자의 도리를 지키는것을 제일가는 미덕으로 여기고있었다. 안향을 따라 천마산으로 가면서 들려주는 그의 뜻깊

은 이야기에 강보는 깊이 심취되고말았다. 대개 산모양이 빼어나면 그 봉우리는 돌로 되고 산에 호르는 골목도 구슬같이 맑은데 강과 바다가 사귀는 곳에 솟았으면 그야말로 불만한 산이다. 조선에는 그런 산들이 많은데 금강산이며 개경의 오관산, 한양의 삼각산, 서해도의 구월산을 꼽을수 있다. 저기 보이는 오관산은 그 형세가 지극히 묘하여 과연 멋스럽다. 안향의 구수한 이야기에 끌려 강보는 어느새 평통팔에 당도했는지 알수 없었다. 평통팔에 들어선 강보는 입을 딱 벌렸다. 골안에 있는 평통사의 현란함도 눈부시지만 그 사찰을 안고 솟은 오관산의 절묘함엔 더 눈이 부셨다. 봉우리마다 신룡히도 관(보자)모양의 큰 바위돌을 일부러 올려놓은듯싶은 오관산은 볼수록 장관이었다. 세상에 이런 절승도 있었는가. 강보로서는 혀를 빼물만도 할일이였다. 지금껏 광방에 들어앉아 책이나 번지는 섣님으로 살아왔으니 언제 한번 바깥세계를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것이다. 「또 가세나. 이제부터가 진짜야.」

안향에게 이끌려 천마산 마루에 오른 강보는 노상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안향이 들려주는 명소마타의 전설도 심비로운데 안겨오는 경치 또한 심비로왔기때문이었다. 「내가 다른 나라에 갔을 적에 그 나라 선비들이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리산에도 가보았네. 내 눈에 리산이 아름답긴 해도 우리의 이

지 않나. 우리 나라에는 정말로 명산이 많대네.」 안향은 모르는것이 없는 것 같았다. 하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문인들이 그의 학식앞에 고개를 숙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랴. 「세상에 그토록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금수강산을 떨치는 일을 찾아해야 할것세. 암, 그

##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10)

#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보유자 김성국



수인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첫번째와 두번째 경기점수는 같았다. 하지만 세번째 경기에서 김성국선수는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을 세웠다. 그는 아시아선수권을 보유 하였을뿐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보유자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김성국선수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저절로 마련된것이 아니었다. 훈련의 나날 넘기 힘들고 비도 있었지만 그는 주저않고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에 집중성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그것은 아시아선수권보유와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보유로 이어졌다. 오늘날 그는 더 큰 경기성 과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일념을 안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 농약 놀이

다는데서, 군물은 군대의 기물이라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었다. 농약은 이밖에도 명절날 유희, 오락때에도 벌어졌다. 농약기는 타악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징, 팽파리, 장고, 북, 소고 등의 악기로 연주되었다. 농약놀이는 보통 팽파리를 치는 쇠잡이의 주역을 담당 한 상좌가 지휘하였는데 크게 농악무, 농악회, 농악노래의 세가지로 진행되었다. 농악무는 많은 사람들이 둥그렇게 원을 지어 돌아가며 춤을 추는 원무형식의 마당놀이와 개인연기를 보여주는 1998년 조 평양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서 창조된 고대문화를 대동강문화라는 학명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세계5대문화(에집트의 《닐강문화》, 서남아시아의 《랑강문화》, 인디아의 《인다스문화》, 중국의 《황하문화》, 조선의 《대동강문화》)의 하나로 선포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동강구역은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와 조선사람의 발원지로, 고대문화의 중심지, 조선민족의 성지로 되었다. 김진혁



조선봉건왕조시기 농악무 (복원도)